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MANDA TRAVEL SERIES

가제 : 아만다의 여행 시리즈 (총 5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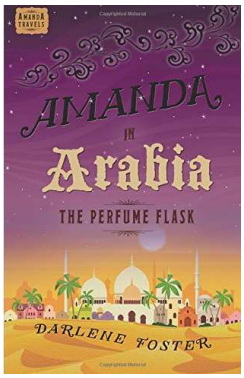
저자 : Darlene Fo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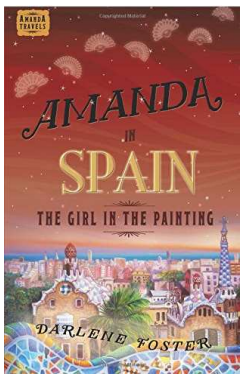
출판사: Central Avenue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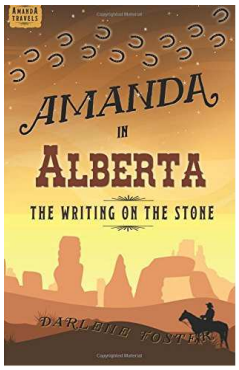
장르 : YA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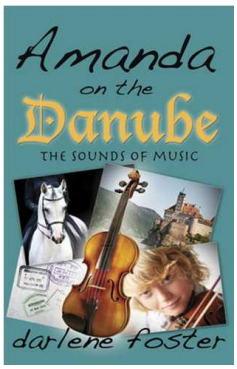
*** "아만다를 따라 빠르게 전개되는 미스터리한 여행을 함께 하다 보면, 어린 독자들은 마지막 장까지 호기심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 『*A Hair in the Elephant's Trunk*』 의 저자 젠 코테스**

*** "두려움을 모르는 아만다와 친구 레아와 함께 떠나는 생생한 모험 속에서 독자들은 유럽의 역사와 지리도 배울 수 있다." – 『*Last Chance Island*』의 저자 노마 찰스**









1권. 아만다의 아라비아 여행 - 향수병*(Amanda in Arabia: The Perfume Flask)*

발행일 *2010*년 *4*월 *1*일 / *114* 페이지

캐나다에서 살던 지극히 평범한 열두 살짜리 소녀, 아만다 로스가 대체 무슨 일로, 어떻게 아랍에미리트로 가게 됐을까? 이 모든 일은 12살 생일날, 케이크를 장식한 초를 후 하고 불면서 마음속으로 빈 소원에서 시작됐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험을 해보고 싶다고 빌었는데,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구 반대편, 미스터리와 전설, 위험천만한 사막과 멋진 친구들로 가득한 낯선 세상에서 모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치도 못했다. 하지만 아만다의 눈 앞에 이미 모험을 시작됐고, 신기한 향수병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첫 번째 모험이 시작된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위험한 일과 매력적인 일들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 아만다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비밀의 열쇠를 풀 단서들이 하나 둘 발견된다. 이국적인 문화와 당찬 아만다의 용기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2권. 아만다의 스페인 여행 – 그림 속의 소녀*(Amanda in Spain: The Girl in the Painting)*

발행일 *2011*년 *5*월 *1*일 / *102* 페이지

어쩌다 세계 여행가가 된 아만다가 이번에는 친구 레아와 함께 햇살 좋은 스페인에 도착했다. 그런데 둘은 그곳에서 어딘가 오싹한 느낌을 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드리드 박물관에 걸린 그림 속에서 본 소녀였다! 그런데 이 이상한 소녀는 스페인 시골 오지 마을이건, 지중해 해변이건, 흥겨운 축제 현장이나 바르셀로나의 북적대는 거리까지 아만다가 가는 곳마다 자꾸 나타난다. 아만다는 이 어린 소녀와 곁을 지키는 조랑말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아만다와 레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또 다시 모험을 시작한다.

3*권. 아만다의 영국 여행*:* 사라진 소설*(Amanda in England: The Missing Novel)

발행일 *2012*년 *8*월 *1*일 / *118* 페이지

영국 여행에 나선 아만다는 햄프턴 코트의 미로 속을 헤매기도 하고 해러즈 백화점에서 쇼핑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고서 컬렉션에서 한 권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아만다는 누군가 훔쳐갔음을 직감하고,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한다. 런던 거리에서 만난 거친 친구들과 서점 주인, 그리고 루퍼트라는 이름을 가진 똥뚱하고 영리한 고양이와 함께 중세 성과 지하 터널, 자갈이 즐비한 런던 거리를 돌며 사라진 책을 찾기 위한 새로운 모험이 펼쳐진다.

4*권. 아만다의 앨버타 여행*:* 돌에 적힌 글*(Amanda in Alberta: The Writing on the Stone)

발행일 *2014*년 *7*월 *1*일 / *142* 페이지

영국에서 친구 레아가 아만다의 고향 앨버타를 찾아왔다! 가이드를 자처한 아만다는 레아를 캘거리 스탬피드 축제에도 데려가고 소 등에 태워주기도 하고 왕립 티럴 박물관에서 함께 공룡 구경도 한다. 그러다 희한한 표시가 되어 있는 돌이 하나 발견되고, 두 친구와 달리 사람들이 갑자기 그 돌을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성질 고약한 카우보이 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 이 돌이 뭐길래 다들 난리일까? 레아와 모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이러다 망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만다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돌에 적힌 이상한 글자를 해독하러 나선다.

5*권. 아만다의 다뉴브 여행*:* 음악 소리*(Amanda on the Danube: The Sounds of Music)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 *128* 페이지

레아와 함께 다뉴브강을 찾은 아만다. 우아한 보트에 올라 아름다운 다뉴브 강을 따라 중세 성과 푸르른 계곡, 장난감 같은 마을 풍경을 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 귀중한 바이올린을 아만다에게 맡기고 가버린다. 그런데 왠 성질 사나운 소년이 바이올린을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산타클로스를 빼닮은 수도사 등 온갖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아만다와 레아는 과연 무사히 바이올린을 지킬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달린 포스터(Darlene Foster)는 캐나다 앨버타 주 목장에서 나고 자라면서 늘 글쓰기와 세계 여행을 꿈꿨다. 현재는 밴쿠버와 스페인을 오가며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OUT OF THE BLUE
가제 : 날벼락
저자 : Sophie Cameron
출판사: Pan Macmillan Childrens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2016*년 모니악 모어 신인 작가상 *2*위, 칼레도니아 소설 상과 바스 어린이 소설 상 결선에 오른 작품**
*** 미국*(Roaring Brook Press)*, 프랑스*(Nathan)* 판권 계약 체결**

하늘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고 우박이 쏟아진다면 아마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우박이 아니라 천사라면? 그것도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상태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보는 앞에서 날개도, 팔다리도 산산조각이 되고 황금빛 피가 주변을 물들인다면? 영국에 사는 자야에게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지붕과 도로, 논밭, 집 마당에 시간도, 규모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이 천사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빠가 이 추락하는 천사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살아 있는 상태로 잡고 말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열한 살밖에 안 된 여동생 라니까지 천사의 처참한 추락을 신나는 오락거리라도 되는 듯 매일 모니터링하는 판국에 이르렀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야도 궁금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지만 아빠처럼 만사 다 제쳐두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처음 천사가 떨어진 건 7개월 전,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 집 안이 온통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날이었다. 자야는 친구 레아의 집에서 부엌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중이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겠냐고 백 번도 더 묻는 레아에게 백 번도 더 그렇다고 확신을 주고서야 겨우 레아에게 헤어드레서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욕실에서 못질을 하던 레아의 오빠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뭔가를 보러 오라고 두 사람에게 외쳤지만, 둘 다 그럴 경황이 없었다. 그러나 그 날, 12월 7일 밤 열한 시가 다 되가는 때 중국 상하이의 어느 번화가에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가 목격됐다. 이탈리아에서 관광을 온 부부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배경에 찍힌 그 엄청난 광경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460억 회라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다. 9/11 테러, 다이애나 왕비의 죽음, 그 무엇도 이보다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자야는 그 영상에 담긴 천사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했다. 아직 어린 남자의 얼굴에, 땅과 부딪히기 전 영상을 멈추고 보면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난다. 찰나의 그 표정을 뒤로하고 천사는 차가운 도보 위에 얼굴부터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말레이시아, 미국, 뉴질랜드, 독일, 일본, 곳곳에서 목격담과 증거 자료가 쏟아지고 실시간으로 현재까지 떨어진 천사의 수와 지역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빠르게 등장했다. 아르메니아에서

는 추락하는 천사와 부딪힌 행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생겼다. 종교마다, 학계마다 각자 나름의 원칙과 신념대로 이 무시무시한 사태에 관한 분석과 예측을 내놓지만 어느 것 하나 그럴싸한 이야기는 없었다. 자야는 수개월이 지나도 뉴스에서 떨어진 천사의 잔해를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는 이 상황이 제발 끝나기만을 바랬다. 그런데 아빠는 첫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바로 그날부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천사의 정체를 밝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 살아 있는 천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목표까지 세운 것이다. 여름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자야와 동생 라니는 현재까지 천사가 가장 많이, 또 가장 빈번하게 출몰하는 곳으로 꼽히는 스코틀랜드에서 몇 주를 머물며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아빠에게 이끌려 에든버러로 향했다. 신이 나서 전 세계 천사의 상황을 생중계하는 라니와 달리, 자야는 이제 정말 아빠의 바보 같은 계획에서 더 멀찍이 물러나야겠다고 조용히 마음 먹는다. 그때만 해도, 며칠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못했다.

아빠가 천사 잡기에 골몰하는 사이 자야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미 멀리 떨어진 도시로 와버린 자야는 발만 동동 구르는데, 꿈 같은 일이 이어졌다. 천사가 바로 자야의 발 앞에 뚝 떨어진 것이다. 놀랍게도 어찌된 일인지 이 천사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아빠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산 채로 지구에 온 천사를 자야가 맞닥뜨린 것이다. 이제 다른 길은 없었다. 자야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작가의 흡입력 있는 문장과 흥미진진한 전개로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이한 일이 벌어진 후, 그 한복판에서 제자리를 찾으려 애쓰는 소녀를 통해 가슴 아픈 상처와 그 속에서 찾아가는 희망을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피 카메론(Sophie Cameron)은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에서 태어나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 살았다. 뉴캐슬 대학교에서 글쓰기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처음 완성한 이 작품으로 2016년 모니악 모어 신인 작가상(Moniack Mhor Emerging Writer Award) 2위, 칼레도니아 소설 상(Caledonia Novel Award)과 바스 어린이소설 상(Bath Children's Novel Award) 결선에 오르고 어린이책 작가 협회(Society of Children's Book Writers and Illustrators)로부터 2016년 '숨은 인재(Undiscovered Voices)'로 선정됐다. 현재 에딘버러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